

“머리 위로 총탄이...” 43년만에 찾은 ‘오월’ 일기

나주출신 이윤희 미주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장 본보 제보



#나는곧바로 시위차 대열 속에 끼어 군용차에 뛰어올랐다. 이때야 말로 진정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다... (중략)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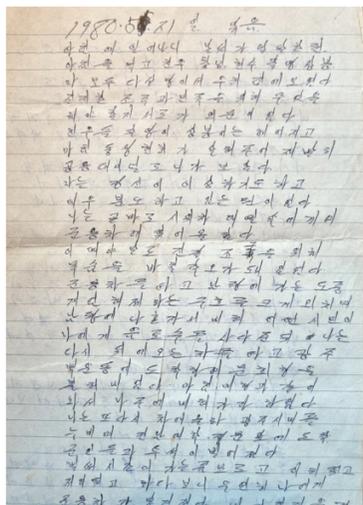
80년 5월21일 상황 생생히 담아 “도청 안 공수부대 주둔” 등 기록 계엄군 발포 등 처참한 장면 눈길 “민주화운동 8차 보상자 신청예정 역사자료 5·18기록관 기증할 것”

시로 진입하여 온 시가지들 누비며 ‘계엄 해제! 전두환 물러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나 21일 오후 5시 현재, 도청 안에서는 군인들이 있다. 물론 공수부대들... 밖이 조금 캄캄해질 때 소방서로 순찰을 나갔는데 머리 위에서 총알이 날아들어 얼른 외곽지역으로 빠졌다. 이제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들어갔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에 꼭꼭 힘주어 눌러 쓴 글씨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묻어났다. 첫머리엔 ‘1980년 5월2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계엄군이 도청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던 그날, 스무 살 청년이 건물 옥상에 올라 숨죽여 작성한 일기다.

일기의 주인공은 이윤희 미주지역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장. 그는 당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 후 다시 대입을 위해 고향인 나주서 공부를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광주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자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대학교를 다니던 친형을 데려오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우연히 발견한 청년시위대가 몰던 버스에 오른 이 회장은 시민군의 일원이 됐다.

일기는 이 회장이 항쟁에 나선 첫날 작



이윤희 회장이 5월 당시 작성했던 일기.



이윤희 회장이 간직하고 있던 과거 한 신문에 실린 5·18 당시 사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영상에 찍힌 이윤희(노란 원) 미주지역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성한 것이다. 이 회장은 21일부터 26일까지 차를 운전해 물자를 나르거나 염을 하는 등 항쟁에 참여했다. 27일 계엄군이 진입하기 직전 도청을 빠져나가 목숨을 건졌다. 이 회장은 이 기간 매일 일기를 작성했으나, 현재 남은 것은 ‘21일’ 단 하루치뿐이다. 이마저도 수십 년간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집에 있던 고서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

이 회장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일기를 작성했다. 이후 일기를 찾으려 했으나 어머니가 모두 버렸다고 해 포기했었다”며 “3주 전

집 정리를 하다 우연히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논어’ 책을 발견해 펼쳐봤는데, 이 일기가 책장 사이에 끼어있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그날의 생각이 나 슬픈 감정이 물려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2일 새벽 계엄군을 피해 친구 지인의 집인 2층 주택 옥상에 올라가 이 일기를 썼다. 3페이지 분량의 일기에는 ‘5·18’이 생생하게 적혀있었다.

“전남대학 정문 앞에 도착, 군인들과 투석이 벌어졌다”, ‘21일 오후 5시 현재 도청 안에서는 군인들이 있다’, ‘공원광장에서 모여 함평으로 무기고 탈환을 목적으로

로 밤 1시에 출발했다’, ‘월산동 성심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원에 도착하니 22일 새벽 1시20분’ 등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돼 있었다.

계엄군의 발포 상황과 다친 시민들의 모습도 묘사돼 있었다. ‘버스 속에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부상자를 나의 군용차에 싣고 막 출발하려고 하니 또다시 무차별 사격. 나의 옆에는 머리에 총알이 박힌 분’ 등 처참한 장면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차가 움직이기만 하면 (계엄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위협사격을 가했다. 차량 라이트도 깨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어 달빛을 이용해 운전했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항쟁이 끝난 후 군에 입대했다. 이후 나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트라우마와 부채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2006년 캐나다 이민을 택했다. 지난 2019년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5·18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직접 수집한 400여페이지의 ‘5·18관련 나주지역 공문서’를, 지난 4월에는 미국에서 지지 시위를 하던 유학생들이 입은 ‘광주 티셔츠’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일기 역시 기증할 생각이다. 더불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과거 한 차례 실패했던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자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다음 주 기록관을 찾아 일기를 기증할 것이다. 일기가 역사적 사료로써 후손들에게 널리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주비·나주·박승엽 기자**

“일제징용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무산은 굴종 외교 민낯”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무산’ 1년을 맞아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성명을 내고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 무산은 “대일 굴종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 할머니를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국민훈장)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수훈이 무산됐다.

단체는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 국정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양 할머니 이외에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교부는 1년이다 되도록 정작 ‘무엇 때문에’ 이견이 있는지 그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시민모임 등 1년 맞아 성명 작년 외교부 ‘이견’으로 서훈 무산

그 뒤 인권위의 거듭된 협의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박진 장관을 상대로 양 할머니의 서훈 수여 절차 재개 여부를 묻자 ‘현재는 강제징용 관련 정부 해법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외교부가 인권상 수상 반대 사유로 절차적 문제(사전 협의)를 구실로 들었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할머니의 인권상 및 서훈 무산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강주비 기자

용서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순사건 유적 도록

‘역사 유적지로 보는 여수·순천 10·19사건 그날의 현장’ 발간

‘여수·순천 10·19사건’ 75주년을 맞아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그날의 현장 93곳 수 차례 답사, 학계·연구자 고증 거쳐 420여 장 고화질 사진으로 묶어 펴내

전라남도

